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12월 1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당 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 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 중앙위원회는 새년도 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각 부분들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언급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 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를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원회의 의정을 토의하였다.

본사기자

탁월한 령도, 위대한 승리

지난 12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더한층 북돋아주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당 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되었다고,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 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당 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되었다고,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위대한 투쟁강령과 앞으로 5년간의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와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려이 소집하시고 각 부문에서 올해 수행해야 할 투쟁과업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

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며 시, 군 강화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랴. 지난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제시하시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었다.

탁월한 령도는 위대한 실천, 거창한 변혁을 안아왔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나라 전체인민이 뜻깊은 올해의 년초부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자립적경제발전의 운명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을 위한 큼직

큼직한 일판을 벌려나갈 때 인민생활의 전초선을 지켜선 경공업부문에서도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사영 품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온 나라가 떨쳐나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도와주는 좋은 결실이 이룩되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모

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을뿐 아니라 지방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져 삼지연시를 비롯한 시, 군들에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훌륭히 일떠서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회한하게 변모되어 세상을 경탄케 하고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을 향하여 계속혁신, 련속공격해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다음에 공화국은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나갈야 한다. 하지만 지금 온 나라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이 높다.

뜻깊은 2021년, 승리의 해 마지막달이 흐르고있는 이 시각 공화국의 각지에서 양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만시원이 앞을 가로막아도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련속공격해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영도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고 하시며

세계적으로 때없이 쏟아지는 무더기비와 우박, 눈사태, 가뭄 현상, 해일현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 이든 가리지 않고 수시로 덮쳐드는 이런 자연의 광란은 실로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행을 주고 있다. 하여 지구상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를 겪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사의 생각은 매우 짧 은 것이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 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요대상건 설도 중지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이 없이는 내릴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 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대해한 혁명사업이 없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었다.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하늘땅 끝까지라도 따르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온몸속에 깃 들어차있고 총후추동 앞으로 이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시는분, 언제나 인민과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강그리 둘러졌다. 하여 교전직전으로 치달았던 수천천 8월의 5일간이라고 말하 는 가장 준엄한 위기일발의 사태,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과도 가 시시각각한 원동분회대단 단장은 2016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조선의 북부지역에서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많은 인 적 및 물질피해를 입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재 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엄청 나기때문에 복구사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결심 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매우 짧 은 것이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 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요대상건 설도 중지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 를 취해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 랑,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 고한 인민관이 없이는 내릴수 없 는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 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대해한 혁명사업이 없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었다.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하늘땅 끝까지라도 따르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온몸속에 깃 들어차있고 총후추동 앞으로 이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시는분, 언제나 인민과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강그리 둘러졌다. 하여 교전직전으로 치달았던 수천천 8월의 5일간이라고 말하 는 가장 준엄한 위기일발의 사태,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과도 가 시시각각한 원동분회대단 단장은 2016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복구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토의하고 강력한 피해복구전투연합지휘 사령부를 조직하는 놀라운 현실 이 펼쳐졌으며 자연재해로 무모 와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이 마 음속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야 영으로 떠나는 감격적인 화족도 펼쳐지기도 하였다. 또한 재해지역 인민들이 근당청사에서 생활하 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 하는 이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 이 없는 감동깊은 화족이 이 땅 우에 수놓아질수 있었다. 어찌 그뿐만인가. 살림집들이 일터설 때에는 너 무나도 기쁘시어 점심식사도 잊 으심체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세 심하게 돌아보시던 친아버이의 모습도,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 질 살림집들을 보시면서는 황홀 하고요,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 뽐 일도 또 어디에 있었으며 보람 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에 있겠는가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인민의 자로운 어버이의 모습도 친지가별된 피 해지역에서 보물수 있었다. 김정 인민의 불행은 두고 그리 도 마음쓰며 인민을 위해 온몸 을 강그리 불태우시는 인민의 령도자에게만이 주실수 있는 사랑이라고 정의다. 바로 이 위대한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화가 복으로 되고 역 경이 순경으로 전환되는 기적적 인 승리가 련이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세인을 놀래우는 이 기적을 두고 어느 한 나라의 종교인은 이 령대 말했다. 《신과 정의, 사랑을 설교하 고 (저승의 행복)을 약속했을 뿐인 종교장사자들이 인류의 여 러 세대들로부터 숭상을 받아오 고있는데 하물며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원하여 자기들을 불행 에서 건져주고 지상락원에서 살 도록 해준 위대한분을 어찌 신 들이 숭배하지 않았는가.》 오늘 공화국의 그 어느 누구 오 만나보아도 그들은 한목소리 로 말한다. 《설사 제2, 제3의 엄청난 자

연재해가 들어닥친다 해도 우리 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화 도 복으로 될것이다.》 역경을 뚫고 기적과 승리를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시 시작된 이후 공화국인민 은 한해한해를 아끼 인류가 체 협하지 못하였던 엄혹한 시련속 에서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력사의 온갖 도전들이 이 나 라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이 나라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 각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 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 이고 가장 과격하게 감행되었 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이었 다. 거기에 련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 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 제않자나 중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수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 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 도 전진하고있다. 무엇보다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 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 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 생, 견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 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 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 다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 술,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의 꿈 과 리상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 조하시면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전진 을 다그치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 운 전진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 문호로 전진적대진군에 커다 란 활력을 부여해주셨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신조였다. 이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 음과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적대세력들이 발광하는 속에서도 수많은 승리를 이루 어내게 하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물질문 명을 안겨줄 천리마건제종합공 장과 평양자라공방, 땅 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 수개방의 완전성과 세계적으 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 품으로 되었던 생산공정을 자기 시도로 완성한 순천화련합기 업소의 아르케일철강생산공정, 자기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것을 실증한 지하전동 차,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 속 에 자기 공장, 자기 도를 대표 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 이 늘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 찬 현실... 어찌 이뿐만인가.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먼 후날에 가 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창조 로, 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지고 있으며 세계과학계에 파문을 일 으키는 수해형의 인재들이 나날 이 늘어나는가 하면 《민들레》 학습장이 들어있는 《소나무》책 가방을 메고 아이들이 전반씩

탁월한 사상리론의 지장

공화국에서는 자력갱생이 전통으 로 되어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 발전하는 시대와 격변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리론 을 더욱 발전봉부하시여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정적 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후의 고전 적목작들을 발표하시어 공화국인민 들의 심장마다에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 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길만 이 살길이고 승리가 있는 길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깊이 새겨주셨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 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이 우 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좌표로 되게 할 움직임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 론활동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봉부시 케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제103(2014)년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인대대회에서하신 연설 《혁명 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 가자!》에서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신, 우리의 기술로 온 세 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 며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라고 정식화 해주셨다. 그이의 이 정식화에는 맨손으로 드 락모프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루지, 우리의 힘과 기술을 오로지 정복한 그 정신을 즐기게 이어 당 당한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자체의 과학기술력에 의거한다면 누구 제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 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자력 의 힘과 기술, 자연에 의거하여 자 제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 일주의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자 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다. 자 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방식은 자력갱생, 견고분투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가장 설박한 과업 조국통일은 곧 애국 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 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 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제 조 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 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교시 하시였다. 통일의 비극을 겪고있는 민족의 고 통과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우리르며 그들모두는 제2차 범민족대회를 성과 지적으로 치르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 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굳게 마음다 지고 또 다시였다. 사람이 자기의 신조를 바꾼 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더우기 한생 지켜온 사상을 바꾼다는것은 진실로 위대한 사상에 감복되어 그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가 능한 일이다. 불미스러운 인생길에서 방황 하다가 생의 말엽에 참된 삶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의 길 을 걷은 전 세계평 화련합 총재 문선명 선생의 이 철리를 옹변으로 실증하고있다. 평안북도 정주태생 인 문선명선생은 인 생조업에 당국의 설움안고 현 해란도 견뎠고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에는 남조선으로 나가 자장 《통일교》의 교수가 되 어 《반공》을 꿰찼던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반공》으로부터 편공 련복으로 인생전환을 하게 된 데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 족애의 위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 조해나갔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리 명지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과 자기 도를 대표하고 자기 공방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 이 늘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 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이 고 유한 투쟁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위 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더욱 여실히 들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 로운 발전의 길을 제힘으로 거어이 열 어나갈것이다. 리 경미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가장 설박한 과업 조국통일은 곧 애국 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 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 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제 조 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 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교시 하시였다. 통일의 비극을 겪고있는 민족의 고 통과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우리르며 그들모두는 제2차 범민족대회를 성과 지적으로 치르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 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굳게 마음다 지고 또 다시였다. 사람이 자기의 신조를 바꾼 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더우기 한생 지켜온 사상을 바꾼다는것은 진실로 위대한 사상에 감복되어 그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가 능한 일이다. 불미스러운 인생길에서 방황 하다가 생의 말엽에 참된 삶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의 길 을 걷은 전 세계평 화련합 총재 문선명 선생의 이 철리를 옹변으로 실증하고있다. 평안북도 정주태생 인 문선명선생은 인 생조업에 당국의 설움안고 현 해란도 견뎠고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에는 남조선으로 나가 자장 《통일교》의 교수가 되 어 《반공》을 꿰찼던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반공》으로부터 편공 련복으로 인생전환을 하게 된 데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 족애의 위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 조해나갔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리 명지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과 자기 도를 대표하고 자기 공방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 이 늘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 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이 고 유한 투쟁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위 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더욱 여실히 들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 로운 발전의 길을 제힘으로 거어이 열 어나갈것이다. 리 경미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가장 설박한 과업 조국통일은 곧 애국 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 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 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제 조 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 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교시 하시였다. 통일의 비극을 겪고있는 민족의 고 통과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우리르며 그들모두는 제2차 범민족대회를 성과 지적으로 치르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 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굳게 마음다 지고 또 다시였다. 사람이 자기의 신조를 바꾼 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더우기 한생 지켜온 사상을 바꾼다는것은 진실로 위대한 사상에 감복되어 그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가 능한 일이다. 불미스러운 인생길에서 방황 하다가 생의 말엽에 참된 삶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의 길 을 걷은 전 세계평 화련합 총재 문선명 선생의 이 철리를 옹변으로 실증하고있다. 평안북도 정주태생 인 문선명선생은 인 생조업에 당국의 설움안고 현 해란도 견뎠고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에는 남조선으로 나가 자장 《통일교》의 교수가 되 어 《반공》을 꿰찼던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반공》으로부터 편공 련복으로 인생전환을 하게 된 데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 족애의 위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 조해나갔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리 명지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과 자기 도를 대표하고 자기 공방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 이 늘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 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이 고 유한 투쟁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위 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더욱 여실히 들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 로운 발전의 길을 제힘으로 거어이 열 어나갈것이다. 리 경미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봉부하시여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4)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천명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 쌍아울리신 정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노라면 마음은 저절로 9년전 봄날의 김일성광장으로 달려간다.

잊지 못할 그 봄날에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퍼줄임을 깊이깊이 새겨주시던 정애하는 그의 음성이 오늘도 울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

이것은 단순히 연설문에 씌여진 글이 아니었다. 온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80여명의 년로하신 몸에도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인 아버지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자,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만들어 이 땅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보시며 또 한자 써나간 정애하는 그의 심중의 열렬한 로로였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기어 이룩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었고 드물지 않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은 민족이 단합을 이룩할 때 대한 그의 열렬한 호소는 해마다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에도

어려하였다.

주제 102(2013)년 1월 1일-조국통일의 주제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아가야 한다.

주제 103(2014)년 1월 1일-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할것이다.

주제 104(2015)년 1월 1일-《조국해방 일흔둘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갈 활 투쟁구호이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제하면서 체제제를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

오늘날 우리 겨레는 누구보다 뜨거운 민족애, 조국애를 지니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이기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이 없다면 민족의 영광과 행복은 없다.

주제 105(2016)년 1월 1일-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 할것이다.

주제 106(2017)년 1월 1일-은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위업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다.

주제 107(2018)년 1월 1일-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위인이 시대를 낳고 위인을 따라 력사는 전진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시며 지난 10년간 조국통일의 분수령을 이룰 력사의 순간순간을 마련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인 심혈과 바치신 로고가 가슴뜨겁게 여운을 준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해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놓여있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고조되었던가.

오늘도 그 겨레는 민족사적 사변을 안아오시며 대결과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의 분리선을 성령 넘어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민족우에 그 어떤 사상도,

주최주장도, 리해관계도 놓일 수 없으며 민족을 위한 사랑보다 더 큰것이 없었다는것을 좌우명으로 새기고계시는 민족의 아버지의 그토록 넓은 도량과 포용력이 있었기에 한해동안에 새차레의 북남남녀상봉이 마련되었고 민족공동의 선언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될수 있었다.

그 나날에 새겨진 정애하는 그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은 또 얼마나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단의 공연도 무렵없이 보아주시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주요배우들을 만나시며 일일이 악수도 나누시며 남측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시던 정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조급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푼에 안아 사랑을 주고 값 높은 삶으로 빛내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경모하여지지 않던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장군님의 령전을 찾아왔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만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것은 대국상의 그 뼈저리고 분망하신 속에서도 그들일행의 체류에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삼각조의 문을 울렸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기업을 고결한 마음을 헤아리시어 사의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자자구구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감사편지를 보내시었다.

언제인가는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와 관련하여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주시던 정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때 그 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종교인들과 각계 인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느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계시는분이시고 했다. 사랑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시다.》라고 칭송해주시었다.

진정 그가 통일애국의 마음을 간직한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함께 통일의 길을 가시는 그의 위업적인 의리의 세계는 끝이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다보다 깊고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탄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앞길에 대통령님이 있다.》, 《김정은원수님의 도량과 애국애족의 뜻은 하늘보다 높다.》, 《통일을 눈앞에 보는데만 같다.》는 칭송의 목소리들이 울려나갔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단합의 원인들을 알면서 도와면하고 방치하였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 하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우리 겨레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내외반통일적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통일애국의 귀한 지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61(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를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담화를 하시었다. 담화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힌 불멸의 지침, 전투적기치이다.

외세의존은 민족의 수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의 통일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 문제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내부분쟁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외세의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하시었다.

여기에는 외세의 존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반민족적행위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것도 외세이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외세의 간섭밑에서는 언제나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외세의존은 민족의 수치!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오늘도 새겨주고있다.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려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 가르치심에는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민족적대단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대보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는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곧 동족대결정책이고 반동일정책이라는것을 새겨주고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위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지금 북과 남이 각각 자위를 주장하고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 가르치심에는 동족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는 결코 자위가 아니라서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북과 남은 함께 손잡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미래를 창조해나갈 동족이다. 만일 북과 남이 서로 싸운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동족을 《자위》로 삼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중상이나 무장장비개발, 외세와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자위》의 허울 밑에 감춰지는 침략행위인 것이다.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오늘도 겨레에게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주고있다.

박명삼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에 대한 《해의혹》과 《미사일위협》소동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고 획책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은 시종일관 견지해온대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갔다.

1990년 5월 3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부원련합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가 상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는 중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공화국정부가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한것으로서 북남신뢰조성, 북남무력중립, 외국무력의 철수, 공화국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개 부문으로 되어있다.

북남신뢰조성에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화,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있다.

북남무력중립에는 북과 남의 무력을 3~4년안에 3단계로 10만명아래 수준으로 각각 낮출데 대한 문제, 공화국정부를 호상 동보하고 균형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반영되어있다.

외국무력철수에서는 북과 남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

출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어있다.

공화국과 그 이후 평화보장에는 비무장지대에 중립국가시군을 배치할데 대한 문제,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서 있을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 등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북과 남이 협상을 통하여 대륙적군사합력을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 제안은 긴장완화와 평화문제를 가능한 한 민족내부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적정장에서 출발한 방안이었다.

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정부는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물론 《민정당》(당시 전 《국회》)특별위원회장도 공화국의 공화국정부가 제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은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량방방합식에 의한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애국운동의 나팔수들이 울린 신년의 메아리

권위있는 해외민족예술단체로 이름떨치고있는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강령을 따라 용진하는 어머니조국과 투쟁의 승리를 같이하며 올해 순회 공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금강산가극단에서는 조국 땅에 나래치는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기상을 자신들의 예술창조활동에도 철저히 구현해나갈 열의를 안고 년초부터 창작창조활동을 활기있게 벌려왔다.

올해 4월 도교에서 대성황으로 진행된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 《북향기》는 동포사회에 민족의 향취와 정서,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

어준것으로 하여 동포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금강산가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본주의일방성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주노조선조금학교창립 30돐 기념공연의 주제를 《술》(소나무)로 정하였다.

눈속에 묻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이역땅에 있어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충성으로 따르며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전체 총련인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애족의 기상을 공연종목들마다에 담았다.

금강산가극단은 대륙행진 엄병화산으로 공연활동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된데 따라 소련대공연활동 등도 진행하였다.

올해에 도교와 효교현, 가나와외현을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동포들의 대렬찬수에 열린 순회공연의 회수는 12개소에서 20여차례 달한다.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 흥취나고 건드러진 장단에 맞추어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펼쳐놓은 아름다움 민족예술무대는 관중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공연 때마다 무대와 객석은 환희의 열기로 하나가 되었고 무대막이 내려도 박수갈채가 그칠줄 몰랐다.

어려운 매일수록 우리의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미시위들



남조선인민들과 주미국들의 반발로 하여 남조선당국은 《씨드》를 성주에 정식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왔었다. 립시배치라고 했었다. 하지만 올해 남조선당국의 행동을 보면 결코 《립시》가 아니라 이것을 알수 있다.

5월부터 매주 2차 이상 《씨드》기지에로의 물자반입을 정례화하고있는것은 성주기지의 확장과 《씨드》의 정식배치를 추구하고있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더욱 무모해지고 무분별해지는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남조선당국의 기만과 배반, 외세와 야합한 정권연속을 가늠이나 정세가 긴장한 조선반도에 전쟁불기름으로 밀려들고있다.

외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눈치보기로 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을 받으면서도 《씨드》에 매달리는 망종의 기저에는 바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이 꿈틀거리고있다.

남조선은 미국의 미사일전초기지, 북침전쟁기지로 더욱 전략적기지로 불수 없기때문이다.

20세기 유럽에 전개되었던 동서전쟁이 21세기에 조선반도와 그 주변을 무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미국의 손아래 《동맹》인 남조선도 막대한 군비경쟁에 휘말려들게 되고 《방위비부담금》 증액, 첨단무기구매를 비롯하여 더욱 강경해지는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것이다.

《씨드》배치강행은 미국의 대조선전략정책,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한 침략무기, 지역미제인방어망구축을 위한 서막이라고도 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거기에 맹종 맹동하는것은 호박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것보다 더욱 비참한 자멸적인 망종으로 된다.

《씨드》 가고 평화 오라, 이것은 성주인민들의 절규만이 아닌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에 방해만 되는 그런 망종을 강행하는것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인가.

김창운

세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세계의 정치추이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보아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부터 새로운 《맹전》의 서막이 열릴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본시기자



전력자산 전개비용 우리가 줄

희세의 악법을 한기바베 무결속으로

남조선에서 희세의 악법인 《보안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 날로 확대되고있다.

지난 1일 《보안법》이 조작된 날을 맞으며 《보안법폐지대선시행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대악법 《보안법》폐지를 강력히 요구한것 또한 실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꾼 법으로 73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탄압한 가장 악명높은 악법이다.》

정당한 주장이다.

《보안법》은 리승만독재에 의해 세상에 빠져져나오면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인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존엄, 지어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해온 불법무도한 악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인권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독재《정권》의 유지, 연장을 위한 피비린 살륙 도구로 되어온 《보안법》이다.

남조선의 독재통치사는 《보안법》이 시행해온 광란의 역사이고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죄악의 자취라고 할수 있다.

《보안법》은 동족을 《주적》으로 매도하는 동족대결의 칼날이고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념을 《러적》으로

박인하여 탄압말살하는 히스테리적인 악법이다.

그 대결악법은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한 황당한 간첩단사건들을 날조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짓밟았으며 민주,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에게도 《총복》, 《천북리적단체》의 최고령을 채웠다.

지난달말 보수《정권》의 《21세기 총복마녀사냥》에 의해 《간첩》, 《총복교사》 등의 루명을 쓰고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의 《국회》증언이 이를 말해준다.

애초에 생겨나지부터 말았어야 할 법 아닌 《법》이고 한시바베 역사의 무덤에 처박았어야 할 악법중의 악법이다.

《보안법》은 명을 다한 폐기물이고 남조선인심과 우리 겨레의 저주와 규탄에 의해 시대밖으로 밀려난 거품이고 오물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객들도 《보안법》폐지투쟁에 합세하고있다.

구시대와 골동이고 독재의 부수적인 《보안법》유지에 한사코 매여달리는자들이야말로 반역의 무리가 아니겠는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결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결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결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결성

남조선의 전국민총행동이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서울 통산미군기지앞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를 개최한 소식을 남조선인터넷신문 《민플러스》가 보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적대정책》철폐, 《한미동맹》파기, 남조선주둔미군 철수, 《보안법》폐지 등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전국민총행동 공동대표 겸 전국총동맹총연맹 의장은 지금 남조선은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있는 세계사적흐름의 반대방향으로 나가있다고 하면서 현 《정권》을 끝으로 불명등한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민주로통 통일위원은 《우리는 권력교체가 아니라 자주와 평등의 길로 가는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의 길, 로동자민중의 집결을 위한 길에 섰다. 남조선은 더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이어 연설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않으며 전 민중이 들고일어나야 쫓겨나게 된다고 하면서

중의 승리이다.》, 《민족자주는 너무 당연한것이다.》 등을 주장하며 민족자주실현을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족의 통일과

세군부대철거를 촉구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11월 27일 경성남도 창원에서 《진해미군세군부대추방경남대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진해미군세군부대추방경성남도운동본부 주최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세군부대 철거와 《한미동맹》해체, 평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있다.

집회에 이어 그들은 미해군 진해함대지원부대까지 거리행진을 하였으며 부대정문앞에서는 종이띠를 이용하여 구호를 적어 날렸다고 한다.

이날 집회에는 경성남도진보연대 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가했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사자》와 《히에나》들

《사자》와 《히에나》들

《사자》와 《히에나》들

《사자》와 《히에나》들



전해 세군부대추방

어느 한 외국문화에 나오는 사자와 히에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수렵의 왕이 되고싶어 히에나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

남조선의 《국민의힘》내부에서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권력탈취에 나선 윤석열은 《사자》라고 해들가요.

그의 심심호위 무사로 나선 《국민의힘》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이미 《히에나》로 명명된것은 분명하고.

그들의 《반란》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윤석열의 무시, 무시 또 무시... 권력쟁탈을 위해 당권쟁탈이 먼 저인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 리준석에 대한 무시가 벌써 몇번 재인지 모릅니다.

리준석이 없을 때를 딱 골라 입당하지 않나, 리준석이 조직한 모임에 공개적으로 빠지다 못해 《왜 오라가라 하느냐》고 불평을 부리지 않나,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었다고 아예 내놓고 무시합니다.

당대표가 반대하는 인물들만 끌어서 자기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받아들인다, 청

물론 파리에가 꿀을 빨아 먹는다고 해서 꿀이 없는 않습니다. 더러워질뿐.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파리에》가 권력이라는 《꿀통》을 차지하면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 박근혜의 보수《정권》을 지내서 잘 알것이다.

사회의 모든것기에 아예 풍지박산났으니까요.

그런 조상들의 후예답게 《국민의힘》것들이 이제는 《파리에》 정도가 아니라 《히에나》무리가 되어 날뛰고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생 등이, 《1일1방언》자, 허풍쟁이같은자를 《사자》로 내세우고.

의국문화에서처럼 말입니다.

만화의 히에나들에게 필요한것은 수렵의 실제적예가 되는것이거지 어리석은 사자를 왕으로 섬기자는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은 오직 권력을 향해 돌진합니다.

만화를 보면 중앙에 어리석은 사자는 히에나들의 먹이감이 되고말던데 윤석열의 종말은 어떻게 끝나려는지.

현 남조선정국이 연출하는 또 하나의 정치만화같습니다.

《사자》와 《히에나》들

《사자》와 《히에나》들

《사자》와 《히에나》들

《사자》와 《히에나》들

커만 가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환멸

최근 남조선에서 다음해에는 《국가채무》가 9 000억 US\$를 넘어설것이라는 내외의 분석자료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배척기운이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정권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경제정책실패와 《COVID-19》사태로 인한 급속한 경제위기실화, 이를 모면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지출 등으로 분석하고있다.

하지만 근본원인은 식민지하청경제로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구조적모순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그에 따른 어쩔수 없는 파국적실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력대로 《원조》와 차관과 같은 외자에 명줄을 있고 그

일본사회 우경화의 산물

일본사회 우경화의 산물

일본사회 우경화의 산물

일본사회 우경화의 산물

남조선언론들 일본을 규탄

남조선언론들 일본을 규탄

남조선언론들 일본을 규탄

남조선언론들 일본을 규탄

년위원회 설치한다. 선거일정으로 지방에 가면서 당 대표에게 알리지조차 않는다. ...무시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 닭 보듯 하며 게 밤에 도토리취금하는것같습니다.

무리에 우두머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동물세계의 약속강식, 생존법칙이 철저히 작용합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비계덩어리를 놓고서는 부모처자와도 나누지 않는것들이니 웅당

시 또 무시에 이어 퇴진, 탈당소리가 나오니 말입니다.

리준석이 윤석열에게 몇번이고 만화에서처럼 《에페지, 망구스와 함께 하라.》고 말해봤자 소귀에 경외기였습니다.

그렇수밖에요. 히에나무리에 매돼지와 망구스가 있을 자리가 있나요.

먹히우고말텐데, 그럼하면 윤석열이 당권

다하고 해야 할것이지만. 그러자 리준석이 팔뚝거리며 영달아왔습니다.

조선의원들과 밤새껏 화살인지 위안술인지 퍼마시다가 《그럼 여기까지》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는 《잠수》를 했다고 합니다.

퍼떡은 된장독이 작아서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미숙스레 노는 꼴을 보면 리준석이 그렇만도 합니다.

그러거나말거나 윤석열은 내 할바만 한다 이러면서 당대표는 안중에도 두지 않게 정치무자이 관찰나방을 부릅니다.

그러나 《리준석패선》이 정설이라는 말이 돌만도 합니다.

리준석이 참 가련하게는 되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무시, 무

당, 정부차원의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중에서 기본본의 핵심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명기 여부라고 전하였다.

언론은 이것은 사실상 《주변국가의 핵, 미사일기술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을 선제공격할 근거를 마련하는것은 물론 전쟁포로를 명기한 평화협정개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적기지공격능력격능력》의 핵심은 상대의 공격후가 보일 때 미사일거점을 선제공격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독도영유권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을 규탄하는 각계

의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한 교수는 일본정부가 남조선의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반발한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흡수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흡수》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일리안》을 비롯한 남조선의 언론들도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선드립은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반응은 자민당정권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심화됐기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본시기자 주광일

지방변혁의 새 국면이 열린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에서 시, 군을 비롯한 지방이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어가고있다.

지방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공화국에서 시, 군은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로서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맡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있다.

하기에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며 빛나는 예지로 지방건설발전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주제110(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의사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저작들에서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것을 시, 군강화의 총적목표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 높아가는 탄원열기

지방의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변혁을 위한 구상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났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성, 중앙기관, 각 도, 시, 군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너도나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당면한 농사일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각 도들에서 도 령과 수단을 집중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농사일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성실성의로 방조하였으며 농업근로자들과 한집안식솔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갔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연재해를 입은 지방인민들을 친혈육의 정을 다하여 사심없이 도와주는 미풍이 활짝 꽃피고있는 공화국이다.

지나해 태풍과 큰물로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 그리고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혹독한 파



모든 시, 군들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천시켜나갈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도처에 일떠서는 사회주의선경마을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지방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져 불라보게 변모되고있다.

특히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훌륭히 전변되어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화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된 삼지연건설은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생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 함경남북도들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도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농촌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각 시, 군들에서는 농촌마을들을 농촌특색의 문화발전을 이룩하고 자기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

남조선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청년층유출과 고령화심화, 인구감소, 도시기능저하 등으로 하여 지방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있다 한다.

남조선에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으로 대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에서는 판매액이 높은 1 000여개의 기업들중 743개가 《수도권》지역에 몰려있는것으로 하여 지방의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이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수록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있다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수도권》지역으로 향하는 리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취업이 절박한 지방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수도권》지역으로 향하면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로인만 남은 마을들이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고있는것은 개탄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의 교육조건 과 의로 및 문화환경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것과도 관련되어있다.

교육격차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수도권》지역대학 학생들의 퇴학비율은 3.2%이지만 지방대학은 5%를 넘어서고있으며 취업률

도 지방대학출신들은 59%로서 《수도권》지역대학출신(66%)보다 낮다고 한다.

이외로 환경을 놓고보아도 인구 1 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시가 3.1명이지만 충청북도 등의 지방은 1.5명밖에 되지 않으며 집에서 종합병원까지의 평균거리도 서울시인 경우 2.85km인 반면에 경상남도는 31.54km에 이르는 등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또한 집에서 문화시설까지의 거리를 보아도 서울에 비해 지방에서 문화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크게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는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의 관이한 차이로부터 《수도권》지역으로 주민들이 몰려오고 지방이 소멸될 위기가 심화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가운데 108곳, 3 500여개의 읍, 면, 동 가운데 1 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속에 지방의 소멸은 곧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사회의 주요모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의 《지역분열》이라고 하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전하는 남조선출판물

북의 삶을 누리는 장애인들

지난 12월 3일은 국제장애자의 날이다.

유엔이 《국제장애자의 날》을 제정한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참여와 보호, 도움은 고사하고 사회의 버림과 배대를 받고있으며 생활처지의 악화로 고통을 시달리고있다.

몇몇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장애인, 로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이 소급발에 팔려가 12년동안이나 노예생활을 한 사건이 보도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었다.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온갖 사회적 악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신체의 불편함을 느끼고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생활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하지만 가장 우월한 장애인보호정책이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장애인들은 그 어떤 차별도 모르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돌보아주며 국가적으로 보호해주고 우대해주기 위한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전하의 불길속에서도 전신불기자들을 위한 교정기구공장이 일떠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하여 신체장애자들에게 공급하였다.

1998년에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고 조선장애자협회, 조선장애자협회 등 장애인관련 조직들과 기관들이 창설되어 장애인들이 정상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특히 2003년에 채택되고 그 후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몇몇년 평양장애자교류단인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공연을 할 때였다. 공연장에서 출연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공연종목들에 담아 펼쳐보

독재문맹 재중동로 리수경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장애인들의 회복치료를 위해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가

공화국에서는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을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필수적으로 내세우고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들을 제대로 찾아내어 치료하고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양에 의한 장애발생을 극력 방지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문제 제시하고있으며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장애자회복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료양소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져있다.

흔히 기능장애에 대한 회복치료라고 하면 로력과 자금이 많이 드는 치료로 알려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발전되었다고는 나라들에서도 기능회복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대중은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장애인들은 훌륭하게 꾸려진 치료봉사기지에서 무상으로 기능회복봉사를 받고있다. 료양치료뿐 아니라 료양소에 오고가 왕복리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또한 평양시 문수지구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수지구 회복원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고있다.

문수지구회복원의 치료실들은 다목적트랙, 심폐기능검사기, 3차원실적조음과진단기, 뇌파기를 비롯한 치료설비들이 구비되어있을 뿐 아니라 달리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 등 다양한 각종 운동치료기재들이 갖추어져있다.

이곳을 돌아본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를 장애자들이 무상으로 리용하고있다는 참으로 놀란다. 기능장애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이렇듯 훌륭한 치료 및 봉사기지를 꾸려주는 나라의 세상에 없다》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진정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주는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은 우릴 외면했다》

— 남조선 장애인들의 처지 —

시커지지 않은게 말이 됩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굶어죽은 말인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김씨는 자신을 혐오스러운 피골로 취급받는 시선으로

로 인해 얼굴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마음에 입었다고 하면서 《화상장애인을 격려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의 2.6배

남조선잡지 《시사저널》은 비판과 절망속에 자살의 길을 택하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남편은 장애인이다. 어서 저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후 밤은 부산스럽다. 밤새 남편의 호흡이 끊길까봐 30분마다 눈을 떠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한다. 그렇게 잠을 잃었다. 내 삶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는 여름밤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죽지 못해 사는게 싫었다》

얼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

남조선잡지 《주간한국》은 화상장애들은 모습이 흉하다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직장도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조차 배척당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화상장애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것은 무엇보다 직장문제다. 이들은 단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수단도 확보하지 못한채 버림받은 몸이 되고있다.

《화상을 입으면 그 순간 모든 삶이 중단됩니다. 얼굴이 보기 흉하다고 막로동도



2017년 촬영

그리고보면 주수양은 비록 장애인이지만 무용가로서 성공의 단상에 올랐다고 해야 할것이다.

어릴적부터 남달리 룰동감각이 뛰어난 그는 어린 막상 청력장애자가 되고보니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의 부모들도 어린 딸에 대한 진도를 비판하며 재능을 꽃피워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남이준 부모들도 포기할수 밖에 없었던 장애자소녀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지켜준것은 어머니조국의 파사로운 품이었다.

나라에서는 무용을 하고싶어하는 주수양을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으로 부대에 내세워주었다.

꿈속에서 그러보던 무용수로서의 가슴 벅찬 생활은 주수양에게 생의 활력을 부여주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 지도교원의 성의있는 방조가 있어 주수양의 무용실력은 전문가들도 탄복하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그의 이름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무대가 좀더하게 화려한 춤동작을 펼치는 처녀가 장애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의 연기는 상상밖이다. 정말 훌륭하다.》

《은갖 시름을 다 잊고 무대에서 화려하고 우아한 춤동작을 펼치는 처녀가 장애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의 연기는 상상밖이다. 정말 훌륭하다.》

본사기자 김진력



2019년 촬영

백설공주 주수양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날에 출연한 예술소조원들 가운데는 《백설공주》로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무용가 주수양도 있었다.

《백설공주와 일품명의 난쟁이》, 《삼모솔》, 《3인무》, 《모르는가봐》, 《목동과 처녀》, 《미인과의 야수》... 그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작품들중에서 특히 《백설공주와 일품명의 난쟁이》의 주인공역형상은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절찬을 받고있다.

발견하는 국가산업미술 (1)

조선로동당창건 76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산업미술에 호가들이 창작한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



110hp 트랙터도안

110hp 트랙터도안은 협동전야를 경제하게 내달리는 트랙터의 모습이 직관적으로 안겨오게 형태학적으로 완성되어있다. 앞시창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미끄러져내리는듯 한 경사를 이룬 기관부형태는 속도감이 강하게 안겨온다.

트랙터의 기본색은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무쇠철마라는 뜻이 안겨오게 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고있다.



2층 버스도안

2층 버스도안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버스의 앞면전체는 라틴형의 시계모양이며 1층과 2층 사이에 시계가 설치되어있다.

버스의 색과 무늬는 노란색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회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불갈기를 날리는 쇠붙이처럼 형성되어있어 시선을 박차고 역 세계 전진하는 공화국의 강성한 기상이 잘 나타나있다.

본사기자



무궤도전차도안

새형의 무궤도전차도안에서 특징적인것은 앞부분의 형태가 독특한것이다.

전차앞쪽 윗부분이 도드라져있어 주행시 공기의 회리저항을 감소시킬수 있게 되어있는 동시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듯 한 느낌을 준다. 무궤도전차의 무늬는 분홍색과 흰색, 풀색과 검은색, 회색으로 되어있어 따뜻하고 균형잡힌 느낌이 안겨온다.

혈분의 자옥을 담긴 지사들

리봉창은 왜왕 히로히토를 처단하려다가 희생된 애국지사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가정사정으로 11살에 사립문창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얼마동안 통신연의 만원건설조 견습생으로 있었다.

1925년에 일본으로 가서 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독립운동에 참가할 뜻을 품고 1931년에 중국 상해에 건너갔다.

그곳에서 《한민족단》과 령계를 가지면서 왜왕을 처단할 결심을 굳힌 그는 다시 이해 11월에 수류탄 2개를 몸에 간수한채 일본 도교로 갔다.

1932년 1월 8일에 왜왕 히

리봉창

로히토가 괴뢰만주국 황제 부의와 육군관병식에 참석한 다음에 히로히토와 괴뢰만주국 황제 부의가 관병식에 참가하고 돌아올 때 도교 궁성 앞정문앞에서 기다리고있다가 그들이 타고 오는 마차에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터졌으나 거리가 멀어 명중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즉석에서 체포되어 도교의 이찌자감옥에 투옥되었다.

리봉창렬사의 의거는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그가 왜왕행렬에 폭탄을 던

지고 체포된 다음날인 1월 9일 중국 국민당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필자로 《한민 리봉창 저격 일본친왕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 밖의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재의 일본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였으며 불행이라고 낸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하였다.

이제 리봉창렬사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1932년 10월 10일에 집행하였다. 그의 왜왕에 대한 처단미수사건은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시위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본사기자



애국렬사 리봉창

원기회복에 좋은 가재미식혜

생선에 곡물을 적당히 넣어 만든 식혜는 바다와 떨어진 산간지방에서 생선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으로 절여온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민족사에 기록된 것은 17세기초라고 한다.

기력을 북돋아준다고 하였으며 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겨울철에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또한 한 조는 열을 조절하므로 대장을 리롭게 하고 당뇨병과 빈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발효식품인 식혜는 소화기 잘되기때문에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영양식품으로 좋으며 마늘이나 고추가루가 들어가기때문에 김치에서 얻을수 있는 항암효과도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잘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마음이 맞고 성수가 나서 일을 하므로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집안 좁은건 살아도 마음 좁은건 못산다.
집안이나 집안이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화목한 가정에는 보물도 부럽지 않다.
가정에서는 보물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함을 이르는 말.
◇ 가는 점이 있어야 오는 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어야 자기에게도 그만큼 정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정이란 주고받는것이 일방적일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보쌘김치 (3)

그림 김 윤 일

이웃과 대문앞에 와서 가마에서 내린 대감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양태 넓은 갓을 쓰고 비단관복 입고 목이 긴 검정자복신을 신은데다가 부엌 부엌한 얼굴, 주름 많은 사발통같은 눈썹 한가운데 가늘게 치켜진 표정을 짐작할 어려운 뺨새눈, 군살이 오른 턱에 매달린 실련 수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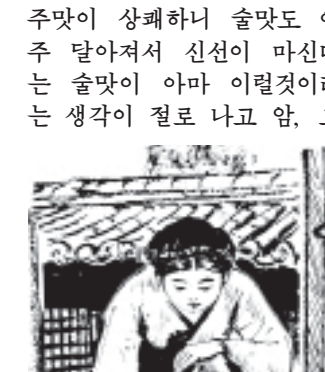
《대감님, 행차하셨습니까? 루추하오나 어서 방으로 드시오이다.》 주인명감은 무작정 황송하여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맞이하였다. 《어허!》 큰 기침 한번으로 대답을 대신한 후 대감은 방으로 들어와 비단보우에 틀지게 년뻥 앉았다. 주인명감은 문가에 무릎을 꿇고앉아 분부하기를 기다리면서 술을 치라 할지, 옥포를

내라 할지, 술을 치라면 어느년을 들여보내야 할지... 속궁리를 분주히 굴리는데 눈지도 낮지도 않은 대감의 목소리가 드르르 굴러나왔다. 《듣자니 송도일판에 소문난 이 집 김치맛이 세상일미라 하니 다른 안주는 다 그만두고 김치만 맛을 보면 되겠네.》 《네, 분부대로 하옵지요.》

주인명감은 골신 절을 하고 뒤걸음쳐 나오면서 (옮겨나, 역시 그 보쌘김치때문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엌으로 출을 추듯이 달려간 주인명감은 고분의 잔등을 두드려주며 《네가 담근 보쌘김치맛을 보시려구 한양대원에서 대감님이 행차하셨구나. 이런 정사가 어디 있었나. 어서 제일 잘 익은것을 한보를 꺼내서 감로주에 곁들여 차려 보내오라.》 하고 수선을 뉘었다. 잠시후 술상을 받은 대감은

수양산성

수양산성은 황해도 해주시 학동동에 있는 고구려시기에 둘로 쌓은 산성이다.



수양산성 남문터

이 성은 원래 지성산성이라고 불리웠고 예로부터 황해도 3대산성의 하나로 일러왔다. 성북쪽에는 수양산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남쪽에는 무연한 언덕들이, 남쪽에는 해주만이 한눈에 안겨오는 절망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있다.

이 성은 서쪽에 높이 솟은 장대봉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봉우리들을 연결한 둘레 5 258m의 큰 산성이다. 성벽은 지형지물을 잘 리용하여 대부분 바위에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보통 6~7m, 밑너비 7~8m, 윗너비 3~4m이며 남문부근에서는 성벽의 두께가 14m나 된다. 이 성은 거의 진구간을 띠면쌓기방법으로 쌓아 든든하게 하였다. 수양산성에는 동, 서, 남, 북쪽에 각각 대문이 있었다. 수양산성에는 외대첩락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수양산성은 선조들의 훌륭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며 용감한 애국투쟁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본사기자

크고싶어하는 아이들은 예동지를 특별히 좋아하였다고 한다. 동지날에 해먹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폭 삶은 팔에 흰 쌀과 물을 두고 쪄 동지죽(동지말죽)을 들수 있다. 동지죽에는 수수 또는 찹쌀가루 등을 가지고 고기는 새알만하고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오그랑이)을 넣어 하였는데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찹쌀수가루를, 남쪽지방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리용하였다. 동지죽을 쪄 때 다른 새알심들보다 큰 새알심을 몇개 만들어넣어 아이들이 먹게 하였는데 큰것이 차례지는 아이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내면서 화목을 도모하는것을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다. 올해에 대설은 12월 7일이 며 동지는 12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간단한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 아침기상때는 내안의 각 장기들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면 좋다. 겨울철에는 산, 알카리 등 유해물질과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이 쉽게 흩날리지 않으므로 이런 날에 운동하면 기관지염, 결막염 등에 걸릴수 있다. 본사기자

겨울철 운동시 주의해야 할 점들

겨울철에 운동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운동 전에 200~300ml의 끓인 물을 마시면 피의 점성을 낮춤으로써 뇌혈전과 관상동맥질환의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수록 이에 더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가 담갔느냐?》 하고 물었다. 《네, 저의 집 부엌일을 하는 고분이라는 내인이 담근 것이오이다.》 《고분이? 내 좀 보고싶으니 얼른 불러오게.》 《네,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또다시 부엌으로 달려간 주인명감은 《야, 대감님께서 보시겠다누나. 옷매무시를

편 집 위 원 회